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다섯 신체의 자생적인 명징성은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 대지와 같나니

어떤 기대도 의심도 집착도 갖지 마라.

붓다의 깨달음은 다섯가지 신체, 깨달음의 다섯가지 성품으로 이뤄집니다. 화신, 보신, 법신, 금강신, 구경보리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바깥에서 이것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인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망상은 사라지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수행의 진전이 느리다고 걱정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퇴굴심을 갖거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탐욕을 강화시키고 조용하게 가라 앉은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모든 희망과 두려움을 내려 놓고 자각의 원시정성이 붓다의 깨달음 그 자체라는 금강석과 같은 확신 속에 머무십시오. 이 길이야말로 바로 완벽한 지복이며, 깨달음의 본질이며 별다른 애씀 없이 깨달음에 다다른 길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유력 후보들 서로 '승리'... 표심 향방은

교구 선거인단 마감, 후보들 선거운동 시작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이 9월 29일 마감됐다.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기호1번 자승 스님 선대위와 기호 2번 보선 스님 선대위는 교구본사를 돌며 지지 호소하고 나섰다.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9월 30일 양산 통도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현재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선대위는 각기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자승 스님 선대위의 경우 50표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자승 스님 선대위 관계자는 "조계종의 선거제는 간선제로 표심이 곧 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상대 후보 측이 유리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예측이 조심스럽다. 진정성을 갖고 유권자를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 선대위도 최대 20표 차이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론 조사에 총무원장의 제1덕목으로 제시

한 '청정성과 청렴성'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활동하는 차별성을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밀바닥 민심이 표심을 움직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로 우세를 장담하는 만큼 자승 스님과

각 진영 본사 순회 지지 호소

서로 '20~50표 우세' 예측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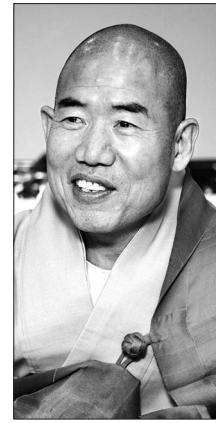
캠프들 유력 인사 모시기 나서

일부 교구총회 부정 의혹 '변수'

보선 스님 진영은 유력인사 모시기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보선 스님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를 지낸 종삼스님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한데 이어 자승 스님은 백상도량 핵심인사인 영배 스님과 前 법규위원장 화법 스님, 前 범어사 주지 정



자승 스님



보선 스님

여 스님을 잇달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어 보선 스님 측으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이들 선거 진영에서 유력 인사 모시기에 앞 다투고 있는 이유는 유력 인사의 행보가 교구 선거인단에 표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연 스님의 공동선대위원장 수락 직후 보선 스님 선대위 대변인 장명 스님은 "재연 스님의 보선스님 선대위 합류는 현재 제방 스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며 "종도들이 보선스님을 차기 총무원장의 적임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의 '변수' 역시 상존하고 있다. 양 선거 캠프에서 제기한 교구 선거인단 선출 과정 의혹이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시작된 선거인단 선출과정의 이의신청은 마곡사, 범주사, 쌍계사로 이어졌다.

중앙선관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교구는 선거인단의 재선출 또는 사고사찰로 지정돼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화사와 마곡사 선거인단은 기호 1번 자승 스님을, 범주사와 쌍계사 선거인단은 기호 2번 보선 스님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추후 향방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9월 30일 열린 제278차 회의에서 동화사와 마곡사 선거인단 선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와 교구총회와 문제를 제기한 측의 입장을 확인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광사 제2의 도약 (1면서 계속)

도심포교당이 전무했던 1982년 서울 잠실에 자리잡은 불광사는 이후 능인선원, 구룡사, 한마음선원으로 이어지는 도심포교의 시초가 된다.

300억원 가량이 투입된 이번 '불광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법당은 물론 불광사 산하 시설 확충에 쓰였다. 315평 규모로 들어서는 5층 높이의 신축법당은 3천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송파노인요양센터와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등의 시설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또한 증축된 전각의 면모도 새롭다. 지상 3층엔 만불전, 4층에는 시민선방을 만들어 신행과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식당에는 작은 무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 4층까지 현대 건축양식을 따르는 한편 전통 목조 양식의 대응전을 지상 5층에 배치해 도심 속 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신축 불광법당의 준공은 2만 사부대중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사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불자들과

함께 했다"며 "불광 대중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사에 임했다는데 의의가 있기에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광사 창건이 도심포교당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듯, 31년 만에 갖는 두 번째 준공을 계기로 이어갈 새로운 사업들은 불교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는 물론 국제교류, 남북 교류사업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불광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예산만 300억 원 투입

2만신도 염원 담겨 의미 커

3천명 수용... 사업 다각화

관련 시설들도 업그레이드

준공행사는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사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불광사 신축 법당에서는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진행된다.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세미나로, 종교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불교와 종교가 나아가 갈 대안을 모색한다. 국내 유수의 불교학자는 물론 개신교, 가톨릭계 학자와 탁당한 스님이 이끄는 플럼 빌리지와 마하시명상센터, 태국의 아쇼케 공동체의 관계자들 또한 참여한다.

배현진 기자

<바로 잡습니다>

960호 16면 화엄만다라 류자효 씨 인터뷰 제목 중 한자 '詩'를 '詩'로 바로잡습니다.

"금권·흑색 선거운동 행위 엄중 처벌"

조계종 총무·호법부장 선거 앞두고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과 호법부장 정안 스님이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각 선거 진영에 공명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종훈 스님과 정안 스님은 10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각 선거 진영에서 미래 지향적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분위기를 이용해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불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금권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

히 진행되어 종단화합과 불교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보자 및 관계자들은 선거법 및 중헌중범에 근거해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모든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철저히 의법조치할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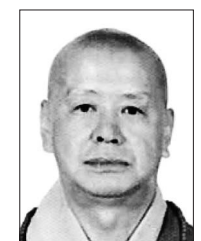
신종일 기자

태고종 부원장 원해 스님 등 임명장 수여

한국불교신문사장에 자운 스님 취임

태고종이 부원장급 이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9월 23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부원장 원해스님(사진)을 비롯해 총무부장 재홍 스님, 재정부장 지관 스님, 문서부장 성인 스님, 규정부장 지담 스님, 사서실장 현광 스님, 중앙강원장 헤일스님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종도들의 화합과 원활한 총무원정에 힘써 중



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사 사장에는 자운 스님이 임명됐다. 자운스님은 제11대 중앙총회위원을 거쳐 현재 제 13대 중앙총회위원이며 대자대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계 새로운 중흥을 위한 성명서

- 우리나라 1700년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과 민족의 역사가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불교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단체들은 미래 불교중흥을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정자들의 진실한 참회를 요구한다.
- 그동안 발생되어 온 불교계의 각종 사태등이, 여러 군소 종단에 수십 차례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각성하고 참회하라.
- 불교계는 승가법을 엄중히 하여 출가 승려를 세속법에 의존하지 말고, 참회와 용서로 출가법 아래 평화적 용단으로 화합하라.
- 전국에 불자들은 승려들의 허물로 불심을 돌리고 있음을 각성하고 현실의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위정자들은 참회하라.
- 한국불교가 한 종단 승려만의 독식 자산이 아니라 모든 종단승가는 일불제자로서, 사부대중은 삼보정재를 헛되게 낭비한다면 참회하라.
-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범종단 지도자는 아상, 인상, 수자상을 모두 놓고 뜻을 모아, 종단이 대통합하는 대도로 나갑시다.

불교지도자연맹 영남불교승가회 신불교개혁회의 전국교회법사단 범불교종단회의 대한불교선도회 한민족운동본부 한국산업진흥원 대한통합중흥회 신행단체수선회 불교수호결사단 불교수미산악회 화엄선종중앙회 삼보종중중앙회 광덕선종중앙회 임제선종중앙회 소림무공보존회 대승석불회 민족가야미술연맹 천지무예도협회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원효종중중앙회 국민행운동대구협의회

공동대표 출가공동체 보성. 법장. 대봉 외 180人 일동
공동위원 재가공동체 석태조(총회장) 외 1000人 일동

이메일 kbm188@nate.com

새시대 한국불교개혁운동에 동참하실 종단 및 신행단체 연락바랍니다.

팩스 02)953-0330, 055)328-2762